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순천시 개막

분권·혁신·포용 위한 지역 균형발전 논의

첫 중소도시 개최...워크숍·공모전  
블루자원 활용 혁신 성장에 앞장

모든 지역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25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막했다.



2019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가 25일 오전 순천시 오천동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시중 총북도지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허석 순천시장 등이 사도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역혁신 우수사례 등을 보여주는 전시박람회 ▲정책전문가·관계자들의 토론의 장인 정책박람회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제들의 축제의 장인 국민참여 박람회로 구성됐다.

이날 박람회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활동가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지역 혁신가 대회에서는 '혁신활동가 전국협의회' 출범식을 진행하고 지역혁신가 워크숍, 청년혁신가 사례전시 등을 진행한다.

다면 어떠한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람회 기간에는 순천만국제 교향악축제와 한평정원 페스티벌, 가을 정원 페스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귀어인과 마을주민 소통 '귀어의 날'

신안·무안·함평서 27~28일 개최...주거·일자리 등 정보교환

전남도는 27일부터 이틀간 신안 마진, 무안 송현, 함평 석두어촌계에서 귀어인과 마을 주민이 소통하는 '귀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귀어의 날 행사가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으로 전남 어촌을 찾아 단기간 및 장기간 머물며 어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전남 어촌 탐구생활',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프로그램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 공기업 최초 '행복동행펀드' 운영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경영자금 20억 지원

전남개발공사가 예약금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는 '전남행복동행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기업이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기업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은행에 위탁,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데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은행에 추천하면 은행이 최종 선정,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대출시 1.9% 자동감면 특례지원을 받게 되고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과 담보 등을 고려한 은행의 추가 대출 금리 혜택도 최대 1.4%까지 받을 수 있다.

전남도, 돼지열병 차단 방역 총력

강화·연천 등 확산...도내 양돈농가 24시간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사례가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 지역에서 추가로 접수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

축산농가도 양돈장 출입구부터 축사 물레에 생석회를 살포해 차단 벨트를 구축하고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ASF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ASF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도내 양돈 농가 상황을 24시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축 질병 확산을 막는 데는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강도 방역에 대한 농가와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도와 지자체는 외부 유입을 막는 ASF 차단 방역과 농가 소득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경기도 연천 1곳, 인천 강화 1곳의 양돈 농가에서 ASF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타지역 돼지의 도내 반입을 막기 위해 시도 경계 지역에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해 돼지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거점소독시설도 도내 전 시군에서 가동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인천 강화군 불은면의 또 다른 양돈 농가 1곳에서 ASF 의심 개체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지역 ASF 확산에 따른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시행과 이동통제초소 운영, 거점소독시설 확대,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5일 현재 국내에서 5건 확인됐다. 이날 신고 사례가 모두 확진된 경우, 국내 발병 건수는 총 8건으로 늘게 된다.

韓美 "방위비분담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외교부 "존중·신뢰 바탕 협의 지속"...내달 美서 2차회의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마무리했다.

미국은 한국에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단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다. 한미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는데, 입장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3899억원이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측은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면서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온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생각이 크게 다르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 이뤄져야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고 여

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내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한다.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출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출포생태공원 10분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주택·아파트
임대 계림동 이마트 부근 2층 88평 3층 86평 복층 사용 가능 2천에 230
강진군 도암면 계리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2천 500만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신년서비스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